

한국사회의 벤처 열풍과 경제구조 변화

이 상 철*

목 차	
I. 머리말	IV. 고용구조와 노사관계의 변화
II. 벤처 열풍의 원인	V. 맺음말
III. 산업구조의 변화	참고문헌

I. 머리말

요즈음은 주가가 폭락하여 바닥을 헤매고 있어 옛일이 되었지만,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3월까지의 벤처 열풍이 거세 한국사회에서 최대의 화제가 되었다. 열풍은 코스닥시장이 급성장하고 벤처기업이 급증한 데서 잘 드러난다. 전자는 코스닥에 자금이 집중되고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에서 알 수 있다. 코스닥 등록기업 시가총액은 98년 말 8조원에서 99년 말 1백7조원, 금년 3월 15일 1백29조원에 달했다. 98년 하반기부터 자금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증권거래소의 주가가 살아났다. 이 거래소에서 기관과 외국인에 밀려 뒷북을 치던 개인투자자들이 99년 7월 이후 뒤늦게 코스닥에 몰려 들었다. 99년 10월에는 외국인이 코스닥에 가세하자 장세가 본격적으로 돌아올랐다. 벤처기업의 주가는 더욱 상승하여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매매회전률은 세계 최고이고, 주가변동성도 주요 국가 증시 가운데 가장 높다.¹⁾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코스닥시장이 한파를 맞은 기간인 2000년 4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135일 동안의 평균 일일 주가지수변동률은 코스닥이 3.04%로 1위다. 2위는 미국 나스닥으로 2.35%, 3위는 한국의 증권거래소 2.28%, 4위는 홍콩 1.58% 순이다. 또 일일 주가변동률이 5%를 넘는 일수도 코스닥이 24.44%로 가장 많다(한겨레신문, 2000. 10. 16).

금년 4월 이후에는 한파가 다가오면서 자금이 빠져나가 돈 가뭄이 생겼다. 벤처기업의 '옥석가리기'가 지나쳐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벤처기업의 열풍 가운데 옥석을 가린다고 코스닥 등록을 까다롭게 해, 코스닥 등록이 어려워지고 코스닥 시장의 '체력'도 저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매일경제, 2000. 7. 18). 이러한 점이 없지 않지만 다수는 현 상황을 정상적인 조정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²⁾ 열풍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벤처기업이 급증하는 것도 코스닥시장 못지 않게 경이적이다. 한국은 양적으로는 세계 2위의 벤처대국이다.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 수는 98년 말 2,000여 개, 99년 말 4,900여 개, 2000년 7월 말 7,700여 개다(중소기업청, 2000b). 2003년에는 4만여 개가 될 전망이다. 한파가 닥친 금년 4월 이후에도 벤처기업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³⁾ 그래서 경쟁국에 비해 양적 성장이 크게 앞서고 있다. 우리보다 벤처가 먼저 발전하기 시작한 일본의 4,700개, 대만의 1,200개, 이스라엘의 1,000개를 능가한다. 기술력은 전반적으로 뒤지지만 성장잠재력은 매우 높다. 급속한 인터넷의 확산, 높은 교육열, 고급인력 보유 등이 큰 잠재력이다(한겨레, 2000b).

이 글은 이처럼 한국사회에 한 차례 불고간 벤처 열풍의 원인과 의미를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벤처 열풍과 벤처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벤처가 반드시 열풍을 동반할 이유는 없다. 열풍이 벤처에만 붙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둘은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지만 구분하여 볼 수 있어야 벤처 열풍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벤처에 한파가 닥치기 시작하면서 벤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비판으로 바뀌기도 한다. 열풍과 마찬가지로 한파 또한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열풍에 가렸던 벤처의 참모습을

2) 예를 들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위기론의 당사자인 인터넷기업의 임원급 이상 120명을 대상으로 '닷컴위기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첫째, 위기론에 대해 83%가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으로 일면 타당하다거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기론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의견은 17%였다. 둘째, 83%가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셋째, 위기의 원인으로는 코스닥시장의 침체, 기업의 수입모델 부재와 도덕적 해이, 벤처캐피탈 회사의 투자 축소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00. 8. 8)

3) 벤처기업은 주로 인터넷, 정보통신, 반도체와 관련된 첨단기업들이다. 2000년 10월 20일 기준으로 1차산업인 농수임어업의 비중은 0.32%, 광업은 0.10%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처리 및 컴퓨터가 30.41%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기계제조업이 12.45%, 전기기기 및 장치제조업이 12.34%이다. 이 추치는 두 달 전에 비해 정보처리 및 컴퓨터가 3.5% 증가하고, 나머지는 0.1%에서 1.15%까지 줄어든 것이다. 벤처기업 중에서도 정보처리 및 컴퓨터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중소기업청, 2000a).

한파가 제대로 보게 하는 점이 있다.

다음부터는 벤처 열풍의 배경과 원인을 좀더 자세히 살핀 후, 열풍에 영향을 받거나 준 경제구조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경제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 고용구조와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다.

II. 벤처 열풍의 원인

벤처 열풍의 배경과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세계 추세와 미국 신경제

열풍은 외적 요인으로서, 첫째 세계경제가 급변한 것을 들 수 있다. 급변의 배경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자본주의가 세계경제의 지배적 현상이 된 것이다. 실물경제를 보완하기 위한 금융이 이제는 실물부문을 일정하게 선도하게 되었다. 금융자본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증권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중개가 과거에는 은행의 자본 및 신용에 의존하였지만 이제는 은행신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직접증권의 매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천표, 2000: 12-13). 급변의 직접적 원인은 정보통신산업에서 기술개발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기술이 다양화되는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패러다임 또는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 신경제의 영향이 한국에 미친 탓이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벤처혁명이 파급효과를 보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증시의 동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스닥의 나스닥에 대한 동조현상은 매우 높다. 99년 1년 동안 둘 사이 지수의 상관계수는 0.83이었다(강원·조영빈 외, 2000).

2. IMF의 구조조정과 대안

열풍의 내적 요인으로서 한국의 경제상황, 즉 IMF 체제하 구조조정과 그 대안 모색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재벌체제가 위기에 처했다. 중후장대형, 에너지 다소비형 중화학공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체제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시스

템 변화가 필요하다.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안이 될 수도 없다. 기존과는 다른 산업과 기업이 요청되고 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특히 정보통신과 인터넷 산업에서 벤처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코스닥의 벤처지수와 정보통신업의 신설업체 수는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구조조정에 따라 정리하고 법제화 등으로 실업과 취업난이 가중되었다. 이 실업의 대책으로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다(김정호·김완표, 1999).

요컨대 한국경제의 한계와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그에 따라 벤처가 증대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경제로부터 벤처경제로의 이행을 산업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양신규·류동민, 2000: 38-42).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지원을 확대하여 육성하고 있는 게 열풍의 또 다른 원인인 것이다.

3. 금융자본주의화와 벤처 붐 과속

열풍은 직접적으로 지나친 금융자본주의화와 벤처 붐에서 유래되었다. 첫째, 무엇보다도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자금 유동성이 증대하였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동산과 금융기관으로 가지 못하는 부동산자금이 벤처와 코스닥으로 집중되었다. 코스닥이 활성화되고 벤처캐피털과 엔젤(angel) 붐도 일어나고 있다. 금년 초까지 투자자금은 초과공급 상태였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나서 주식 열풍이 확대된 것이다.

이것에는 IMF체제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식 금융체제를 도입한 게 기초가 되었다. 주식자본주의로 변하면 미국이 한국 금융시장을 보다 손쉽게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주식투자 가구 비율이 높다(임웅기, 2000). 우리 정부는 차입에 의하지 않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를 선호했다. 은행을 비롯한 간접금융산업의 기반이 황폐해진 상황도 이를 유도했다.

둘째, 인력이 급속히 몰리고 있다. 성공사례가 전파되면서 벤처로 전직을 많이 했다. 신규 시장진입자도 벤처를 선호하고 있다. '코스닥이 뜨고 벤처신화가 퍼지면서 대학가는 벤처취업 열기에 휩싸여 있다'(한겨레, 2000b). 또 젊은이와 회사의 취업자들은 기업 내에서 피용자로서의 성공보다 기업가로서의 모험을 택하도록 자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취업난의 대안만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벤처 창업을 인식하는

경우이다.⁴⁾ 대기업에서 인력난을 외칠 정도였다. 인터넷·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던 것이다.

셋째, 열풍은 한국인의 급한 성격, 즉 빨리빨리 모든 일을 행하는 성격과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요컨대 열풍의 원인은 여러이지만, 벤처에 자금이 집중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열풍은 투기이자 머니 게임(money game)이며 카지노 자본주의(casino capitalism)의 속성을 갖고 있다.

4. 열풍 뒤의 한파

벤처는 2000년 4월 이후 조정을 겪고 있다. 이것은 열풍의 반면이다. 한파를 보면 열풍의 성격과 한계를 알 수 있다. 첫째,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투자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주가도 급락하였다. 코스닥의 벤처지수는 2000년 3월 9일 787.0을 정점으로 그 후 100대 중반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둘째, 벤처기업의 옥석 구분이 이루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 열풍 와중에 소외되었던 제조업 관련 벤처기업이 선호되고 있다.

셋째, 인력이 대기업으로 역이동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가 하락과 벤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벤처기업간에도 유망한 기업으로 인력이 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한파와 조정에도 불구하고 월별 벤처기업 신규등록 확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은 벤처기업 전체가 시효를 상실했다기보다 열풍이 진정된 것을 뜻한다. 벤처기업 내에서도 기술력과 수익모델이 있는 것과 '무늬만 벤처'인 것 간에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반은 없이 벤처 열풍에 편승해 양적으로 팽창했던 기업들은 경쟁이 심화되자 도태되고 있다. 자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김정호, 2000).

이러한 최근의 한파는 벤처 열풍의 원인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열풍과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도 나타내고 있다. 이 점들은 산업구조, 고용구조, 노사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금은 세계적인 초국적기업인이 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Bill Gates), 인터넷 소프트웨어의 손정의, 야후의 제리 양 및 코스닥에 등록된 인터넷기업의 창업주 등이 모범이다. 한국에는 메디슨의 이민화, 골드뱅크의 김진호, 한글과컴퓨터의 전하진, 새롭기술의 오상수 등을 들 수 있다.

Ⅲ. 산업구조의 변화

벤처 열풍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를 촉진하는 점이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산업이 중심인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지식정보산업에서는 벤처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야기된 신경제론도 이러한 변화에 기반하고 있다.

1. 제조업

산업사회는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을 담당하는 공급자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성장이 될수록 생산의 추가비용이 팽창하는 회소성의 원칙에 기초한 아날로그 경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성장과 낮은 실업률은 결국 고비용·고물가를 초래하므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 이는 2차세계대전 이래 전통경제학이 취해온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른바 전통 굴뚝산업인 제조업이 일방적으로 쇠퇴할 것인지 아니면 재구조화될 것인지를 둘러싸고는 논의가 분분하다. 예컨대 대한상의의 박용성 회장은 오프라인 기업의 온라인 접목을 얘기하고 있다. 이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드시 제조업 기반의 쇠퇴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조업은 비록 비중이 감소하지만 일정하게 재구조화되어 정보화 추세에 적용해 나갈 수 있다.

실제로 제조업에서 제품개발과 생산과정 등에 정보기술이 적용되고 외부조달이 진전함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조형제·임현경, 1999: 29-31). 선진기업들은 디지털 충격에서 벗어나 온라인 기업과의 접목과 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일정하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현재는, 1단계 기존질서의 파괴자 출현, 2단계 전통기업의 반격을 거쳐, 3단계 전통기업과 사이버기업의 융합이 일어나는 중이다. 한국에서도 99년 인터넷 업체의 시장가치가 폭등하면서 디지털 혁명의 1단계가 시작되었다. 지금은 대기업들의 디지털화로 2단계가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는 온라인 기업과 오프라인 기업의 제휴가 모색되고 있다(김은환·이용희, 2000). 뿐만 아니라 제조업은 산업연관효과 및 고용효과가 크므로 그 기반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제조업의 재구조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산업의 기반이 제조업에서 벗어나는 추세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제조업 상황도 이러한 변화 추세에 들어섰다.

2. 지식정보산업

도래하고 있는 정보사회 또는 지식기반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어 지식정보산업이 중심을 이루는 사회이다. 경제의 중심이 물질 생산이 아닌 정보재의 생산으로 이동한다. 요즈음은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 산업에는 반도체·컴퓨터·인터넷·정보통신 산업 등이 속해 있다. 이들은 현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성장성, 미래가치도 크다. 최근에는 생명산업도 각광을 받고 있다.

지식정보산업은 다음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고양한다. 첫째, 아날로그 경제의 기본인 희소성의 원칙이 무너진다. 디지털 경제의 재화인 지식과 정보는 실물 재화와는 달리 추가비용 없이 무한복제가 가능하다.⁵⁾ 또 싼 비용으로 유통될 수 있다 (Davis and Stack, 1997: 121-133). 둘째, 금융자본이 아날로그 경제에서는 산업자본의 뒷받침 역할을 했지만, 디지털 경제에서는 독자화되어 이익증식의 주된 기제로 작용한다. 셋째, 자본주의의 독점경향이 완화되면서 중소기업도 핵심역량만 있으면 생존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생존조건이 완화된다. 넷째, 수요자 위주의 생산이 이루어져서 수요자가 주도권을 행사한다. 고객의 요구와 정보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된다. 다섯째,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고 노동자로부터 분리되어 사용될 수 있는 지식이 늘어난다(Kenney, 1997).

한국에서도 현재 지식정보산업 분야가 급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벤처기업은 정보통신산업에 속하는 게 가장 많다. 산업구조의 변화추세에 맞춰 신생기업은 정보통신산업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신경제론

미국에서는 지식정보산업을 바탕으로 나타난 근래 경제 현상의 변화를 신경제로 개념 정립하는 편과 이를 거품으로 보는 편으로 갈라져 논의가 분분하다. 신경제론에서

5) 정보재 (information goods)란 디지털 형태로 배분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품을 의미한다. 문서, 화상, 음성, 영상,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이 그것이다. 정보재는 다른 상품들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경합적(rival)이지 않다. 둘째, 배제가능(excludable)하지 않다. 셋째, 투시적(transparent)이다. 넷째, 초기 개발비용은 많이 들지만 한계비용 즉 복제비용은 극히 적게 든다(한준, 2000.) 다섯째, 다수가 소비하더라도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여섯째,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가 싸진다(Schiller, 1997).

는 경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경제의 중심이 산업경제에서 지식정보경제로 이동함을 강조한다. 여기에서는 기술혁신이 생산에서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최소성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추가비용이 거의 없이 생산이 증가한다고 본다. 생산성 증대에 의해 저물가·저실업·고성장이 장기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Cox and Alm, 2000).

90년대 이후 미국에는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낮은 인플레이션, 낮은 실업률, 높은 성장이 지속되는 장기호황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순환인가 아니면 경제구조의 변화인가? 신경계론은 장기호황이 구조변화 때문에 가능하므로 거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조변화란 구조조정에 의해 제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정보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해 경제의 디지털화가 촉진되며,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제성장이 견인됨으로써, 저물가·저실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현상이다. 원동력은 기술혁신이다.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다. 정보통신산업 또는 나스닥에 등록된 첨단기술기업의 생산성 증대는 고무적이다. 기술혁신과 정보화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있다.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이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으로 교체되고 있는 것이다(윤성훈 외, 2000).

이처럼 기술혁신의 장래는 밝다. 기술혁신은 기업가정신과 투자와 함께 선순환을 형성하고 있다.⁶⁾ 벤처기업은 기술과 창의성에 바탕을 둬으로써 이러한 경향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신경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공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노동시장, 대규모 무역적자의 확대, 인플레이션의 위협,⁷⁾ 증시의 격렬한 조정 가능성을 그 근거로 본다.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인플레이션 없는 고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고 본다.

6) 신경계는 산업활동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경영체제에 근거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고,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학적 측면에서도 기반이 튼튼하다고 본다(Sahlman, 1999). 첫째, 신경계에 토대를 둔 기업은 사업자금 조성이 쉽다. 투자자들은 성공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에 과감히 투자한다. 둘째, 미국인들은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기업가를 선호한다. 실패 기업가가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인정하며 관대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기업가정신과 투자 사이에 선순환이 형성되고 있다. 셋째, 우수한 인재들이 이 길로 들어서고 있다. 넷째, 유통구조 혁신이 물류비용을 크게 낮추면서 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있다. 다섯째, 신경계가 전세계로 전파되면서 세계경제가 더욱 생산적으로 되고 있다. 이처럼 신경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소들이 튼튼하므로 현시점에서는 신경계의 거품효과보다 금리 인상 등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이 문제라는 것이다.

7)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인 그린스판(Alan Greenspan)은 자본시장의 지나친 활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염려되어 작년부터 금리를 선제적·단계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다.

크루그먼(Krugman, 2000)은 첨단산업의 주가가 피라미드 사기와 유사한 폰지 게임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시장의 불안정성, 첨단기술주에 대한 거품 논쟁은 이를 반영한다. 이에 의하면, 신기술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의 주가가 상승해서 초기 투자자들이 막대한 이득을 낼 경우, 더 많은 투자자들이 달려들어 주가는 더욱 오르게 된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처음에 의심을 가졌던 투자자들은 바보처럼 보이게 되고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은 수그러들게 된다. 그러나 '막차'를 탄 사람은 패가망신을 하는 비극적 결과가 도래한다. 투기적 자본주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벤처기업에는 기술력, 창의성, 도전정신, 성실성이 있는 곳이 많다. 그러나 아직 미국처럼 신경계를 운운할 계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계가 세계에 확산될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각국은 미국의 신경계를 따라 배우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은 벤처 열풍 현상 동안 신경계론에 고무되어 있는 상태였다.⁸⁾ 비록 한파가 다가왔지만 굴뚝산업과 연결된 인터넷 업체들은 생존 가능성이 높다. 금년 4월 이후 조정과정에서도 제조업에 기반을 둔 벤처기업은 타격을 거의 입지 않고 있다.

한국의 현황은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을 통해서 살펴보는 게 손쉬운 방법이다.⁹⁾ 코스닥에는 제조업이 68%, 정보산업이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점차 정보·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일반기업의 1/3 수준이지만 매출액 증가율은 일반기업의 5배이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일반기업의 3배에 이른다. 99년 67개 벤처기업이 액면가 627억 원의 10배가 넘는 7,408억 원을 코스닥을 통해 공모했다.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은 99년 말 173개로 등록주식수는 30.8%이지만 연간 거래량과 거래대금에서는 67.5%와 66.3%를 차지한다. 시가총액이 큰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정보산업에 속해 있다(유시왕, 2000). 이 중 2/3가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제조업과 대립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점

8) 강남훈(2000: 68-73)에 의하면, 신경계가 중심부 국가에서는 호순환 형태로 나타나지만 주변부 국가에서는 악순환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지적재산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전세계적으로 단일한 거대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중심부에서 주변부의 잉여를 지대와 독점이윤 형태로 수취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경향이 아직 적극적으로 표출되지는 않고 있고, 각국은 미국을 모델로 추종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 실정이다.

9)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은 3종류로 나뉘어진다. 99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벤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이 173개, 투자회사인 뮤추얼펀드가 58개, 벤처기업과 투자회사 이외의 일반기업이 222개이다.

이 많다. 2000년 상반기 실적에서도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을 성장성·수익성·안정성에서 앞서고 있다. 매출액 증가율은 64% 대 27%, 영업이익 증가율은 45% 대 39%, 부채비율은 53% 대 149%로 나타났다(한국경제, 2000. 8. 17).

IV. 고용구조와 노사관계의 변화

벤처 열풍은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내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IMF체제에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과 기업조직·기업관행 등에서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1. 구조조정

IMF체제 이후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을 요구받아 왔다. 구조조정은 크게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네 부문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벤처경제와 벤처기업이 대안으로 부상하여 증대하고 있다. 벤처는 특히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업종, 기업지배구조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어 노동 유연화와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는 첨병 역할도 하고 있다.

2. 노동시장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은 IMF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시장 정책,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벤처론은 신경제론, 디지털 경제론과 함께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는 이론적·이데올로기적 무기로도 기능하고 있다.

IMF사태 이후 노동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고용 불안이 극심해진 게 한국경제의 일반적 상황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정리해고, 다운사이징, 구조조정을 해왔다. 남아있는 노동자에게는 업무가 과중해지고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 대기업에서는 그 특징 중 하나인 기업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 내 숙련의 퇴화가 이를 촉진하고 있다.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의 비율이 저하되고 임시직·시간제·파견 노동자가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임금노동자의 과반수를 넘는다. 금년 3월에는

52.5%나 되었다. 이것은 97년 12월 47.7%에서 5% 가량 늘어난 것이다. 99년 신규취업자 중에는 92%가 임시직이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근무한다. 그러나 일은 정규직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80% 가량 된다. 자발적 비정규직은 17.4%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강요당한 입장이다(한겨레, 2000. 6. 12). 금년 7월 1일 시행 2년을 맞은 파견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 고용을 피하기 위해 해고와 전환배치 등을 계속하는 것도 고용 불안울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벤처기업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정보기술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정도가 높은 벤처업계에서는 기술변화 및 시장의 변화가 빠르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벤처기업은 핵심인력 외의 단순인력을 비정규노동으로 고용하여 시장변화에 유연해지고자 한다. 자유노동자(free lancer)의 벤처 형태인 e랜서(e-lancer)도 확대되고 있다.¹⁰⁾ 미국에는 2천만 명이나 활동하고 있다.

평균 이직률도 벤처기업에서는 대기기업의 17배나 된다. 불안정 노동은 IMF체제 외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를 통해서도 강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특히 금융자본주의의 세계화로 전개되면서 노동에 대한 금융적 지배도 강화되고 있다. 금융적 지배는 코스닥 등록, 스톡옵션, 우리사주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홍석만, 2000).¹¹⁾

3. 인력 이동

자금과 함께 인력이 벤처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기업 출신자와 공직자가 벤처기업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벤처를 선호해 왔다. 인력이 벤처로 이동하는 것은 주로 벤처가 가진 긍정적(pull) 요인 탓이다. 벤처에선 기회가 확대되고, 성취

10) e랜서는 e비즈니스와 프리랜서(free lancer)의 합성어이다. e비즈니스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자를 뜻한다. 이들은 인터넷의 확산 탓에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웹마스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웹디자이너, 마케팅 전문가, 번역가, 비즈니스 모델 기획자 등이 e랜서 그룹에 합류하고 있다. 회사 근무가 끝난 퇴근 후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작업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나 팀을 구성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명함을 여러 개 갖고 있기도 하다. 수입은 주말 작업만으로 월 3백만-4백만원 정도이다. 경력이 5년 정도인 자를 활용하려면 월 1천2백만원의 비용이 들기도 한다. 이들이 확대되는 이유는 정보통신업계의 인력난 탓이다. 시장은 급팽창하는데 우수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신규 인력 공급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정규직보다 많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된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단기간의 프로젝트이거나 여러 프로젝트가 연속될 경우 e랜서와 단기계약을 맺는 게 유용하기도 한다(한국경제, 2000. 8. 1).

11) 자세한 것은 다음 4절의 노동조건, 이상철(2000)의 IV장 이데올로기 효과, 그리고 홍성태(2000)를 참조하라.

와 자아실현이 용이하고, 참여노동이 가능하고, 스톡옵션 등 '대박'을 기대할 수 있다.

인력 이동의 주된 경향은 대기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창업주 또는 경영자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과 성취를 이루고자 함이다. 노동자에게는 참여노동, 성취감 고취, 자기계발, 재숙련화, 스톡옵션의 이점이 있다. 긍정적 측면으로서 노동과 노사관계에 관련된 기초적 개념과 사고의 틀에 변혁을 가져오는 점이 있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사장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다(한겨레신문, 2000. 4. 25). 벤처경제는 꿈과 이상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동과 자본이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은 자아실현의 열정을 가진 능동적 존재이며 일은 그 열정의 표현이다. 여가시간은 자신의 열정과 꿈이 멈추어 있는 시간이며, 시장의 기회는 사라지고 경쟁기업은 자신을 추월하고 있는 시간으로 간주된다. 벤처 노동자들은 시간의 초과 노동을 즐긴다. 벤처인 평균 근무시간은 16시간, 수면시간은 5시간이다.

벤처로의 이동은 초기에는 기술인력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성취, 자아실현, 기회확대 등을 바랐다. 다음으로는 신생 벤처기업의 이름을 외부에 알려 자금을 대줄 돈줄과 제품을 구매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 담당자들이 많이 이동했다. 코스닥 등록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영업기반이 안정되고, 매출이 늘자, 금년에 들어와서는 세법과 회계에 능하고 인사관리를 잘하는 대기업 출신 재무·인사 담당자들이 벤처에 스카우트되는 중이다. 인력 이동의 부차적인 경향으로 벤처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인력이 역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벤처의 긍정적(pull) 요인이나 벤처 열풍의 분위기에 휩쓸려 벤처기업으로 이동했던 자들이 대기업으로 회귀하는 경우이다. 아직 대세는 벤처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지만, 유타(U-turn)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저임금, 초과노동, 격무, 고용불안, 코스닥 주가 및 스톡옵션 효과 하락에 따른 미래 불안 등이다. 미래가치만 보고 있기엔 임금수준이 너무 낮고, 초과노동이 다반사이고, 업무량이 과다하고, 노동강도가 세고, 기업이 안정되지 못하고, 4월 들어 주식이 급락하는 등 벤처의 유인요인이 줄어든 것이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장점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노동자를 밀어내었던(push) 요소들이 완화된 점도 회귀에 일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닷컴주(.com株)가 하락하면서 벤처기업의 인력이 대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 노동조건

벤처기업의 노동조건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다. 코스닥 상장이나 스톡옵션 제공 등의 유인책을 통해 미래의 기대가치를 심어줌으로써 노동자에게 현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인내하게 하고, 노동자를 규율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다반사다. 밤샘작업, 시간외 노동, 저임금 등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투기집단화하는 점이 있다. 노동조합을 통한 견제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¹²⁾ 전근대적--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탈근대를 표방한 전근대적 노사관이 만연하고 있다.

‘대박’의 꿈은 소수 경영진들만의 잔치에 그치고 있다. 주가 폭등으로 이익을 본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돌아온 몫은 적다. 금년 4월부터 주가가 폭락함으로써 코스닥에 걸었던 희망마저 불안으로 바뀌고 있다.¹³⁾ 주식으로 한몫 챙길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극심한 노동강도를 참아왔는데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벤처신화’에 미래를 저당 잡히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실리콘 칼라’들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공식적인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장시간 노동, 초과 근무, 밤샘 근무, 휴일 근무 등이 다반사다. 혼자서 여러 업무를 보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초과 근무를 기술이나 능력 부족 탓으로 보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를 불인정하여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관행도 뿌리깊다. 병역특례제도를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인턴 사원을 착취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벤처기업에서 업무는 프로젝트 위주이고, 경쟁상대가 존재하고, 1위만 살아남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이 초 단위 또는 시간 단위의 것들이다. 그래서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 측면이 있다(이상호, 2000).

5. 기업문화와 조직구조

벤처와 코스닥 열풍은 과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 경제와 기업의 기본틀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벤처의 기업문화와 조직구조는 합리성, 효율성, 투명성, 나눔의 문화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구체적으로 벤처 조직과 문화의 장점은 첫째, 조직이 수평적·개방적이다. 대기업이 오너 중심의 수직적·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다면 벤처는 수평적·네트워크적 구조를 이

12) 벤처기업 중에서 최초로 노동조합이 결성된 (주)멀티데이터시스템의 노조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0. 5. 4). “입사 2년차 사원의 월급이 65만원 선이며, 월요일에 출근해 토요일에 퇴근하는 극도의 초과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당근 달아매고/ 이라이라/ 밤샘작업·저임금/ 벤처열풍 토론회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다/ 즐긴다고요?/ 시달립니다.”

13) 금년 4월부터는 주가가 급락하자 일에도 치인 직원들을 위해 일부 벤처기업에서 월급을 대폭 인상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루고 있다. 그리고 직원 모두가 주인인 경영체제의 면이 있다. 둘째, 수평적 조직인 만큼 의사결정이 빠르다. 셋째, 조직이 유연하고 정보흐름이 빠르다. 넷째, 개인의 창의력을 존중하고 적성·능력·재능을 발휘하기 좋다. 다섯째, 능력과 업적에 따라 즉각 보상을 한다. 여섯째, 능력과 업적 위주의 평가는 학벌을 타파한다. 일곱째, 미래의 소비자--젊은이--에 대한 이해가 깊다.¹⁴⁾

특히 고용 측면에서 종신고용과 대기업 선호 경향이 무너지고 있다. 우수한 인력들이 대기업을 떠나자 이들을 잡기 위한 대기업의 노력도 활발하다. 기업에 대한 헌신 몰입보다 자신의 인적 자본을 중대시키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관료적이어서 능력 발휘가 쉽지 않은 대기업보다 벤처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기업도 벤처 문화와 경영기법을 도입하거나 사내 벤처 육성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IMF체제 아래에서도 제대로 되지 않던 재벌의 구조조정이 벤처 선호와 경제 패러다임 변화라는 시장 상황에 의해 진척되고 있다. 재벌에게 경영 혁신을 통해 위계적 구조에서 개방적 구조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에서는 권한을 하부로 이양하거나 팀제를 도입하고, 반공식·비공식조직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압력에도 변하지 않던 관행들이 단기간에 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99년 8월 말 기준 벤처기업 전체를 조사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중소기업청, 1999). 벤처기업은 경영자의 자질이나 경영스타일도 일반기업과는 다르고, 종업원보상제도·재무건전성 등에서도 기존기업과는 색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기업형태의 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권태환·조형제·한상진, 2000: 161-167).

V. 맺음말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초까지 한국사회에 불어온 벤처 열풍은 신경체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앞서 나간 결과이다. 여기에는 IMF 체제라는 경제 상황과 야당의 집권이라는 정치 상황이 이를 부채질한 점도 있다. 미국 상황을 보고 기대가 지나치면서 자본주의의 투기적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14) 이상의 장점 외에 단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가정--사생활--을 많이 포기해야 한다. 입사·퇴사가 너무 자유로워 조직이 안정적이지 않다. 항상 긴장해야 하며 스트레스 강도가 높다. 사업의 위험부담이 크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인식이 낮다. 체계적이지 못해 조직관리가 어렵다.

벤처기업의 자산규모,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서 신경제를 운운하는 것은 아직 무리이다. 신기술 개발도 세계수준이 아니다. 영업이익보다 영업의 이익이 많다.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우선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뒤 풍부해진 자금으로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 역할까지 하며 다른 업종에 진출하여 자본 수익 증대에 치중하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은 대세이다. 한국사회의 경제구조도 변화의 단초를 맞았다. 이와 관련된 벤처 현상은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세계화·신경제·디지털 경제 및 한국경제 구조조정과 맞물려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세계중시의 통합 과정은 패러다임 변화의 또 다른 현상이다. 벤처거품론과 벤처진화론의 논쟁에서 얘기되듯이 열풍을 거품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열풍이 벤처가 진화하는 과정의 한 부분임도 부인하기는 힘들다.¹⁵⁾ 열풍이 단순히 일회적 에피소드로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벤처 열풍이 가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열풍은 먼저 벤처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것에는 신경제 효과, 산업구조조정, 참여노동 증대, 기업문화 변화, 재벌체제 변동 등의 진보적 성격이 있다. 부정적인 면은 대부분 투기적 열풍이 초래하는 악영향에 해당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기존 산업을 위협할 정도로 자금과 인력이 벤처로 이동하였다. 증권거래소의 투자자금이 코스닥시장으로 대거 이동하였

15) 2000년 4월 벤처에 한파가 닥치기 시작한 후에도 벤처기업 등록의 열기는 여전하다. 투자자본은 위축되었지만 벤처기업은 99년과 달리 업종과 성향에서 진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먼저 등록요건 네 가지 중 기술평가 기업에 의한 등록비율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 벤처캐피털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개발사업기업, 기술평가 기업이 비교적 고르게 등록을 한 것과 차이가 난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업 착안보다 차별화된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이 늘고 있다. 둘째, 벤처를 인터넷 기업이 선도하던 것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 생명산업, 건강, 환경, 신소재,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벤처기업 설립을 정부가 주도하고 개인이 창업에 나서던 분위기가 대기업도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넷째, 신생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은 중소기업청이나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진흥원의 창업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대학의 창업보육센터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2000년 들어서는 시장이 확대되면서 벤처기업 창업에서 마케팅·자금조달·해외진출·코스닥 등록·나스닥 등록 등을 윈스톱으로 도와주는 민간 보육, 컨설팅 업체가 1백개 이상으로 늘었다. 다섯째, 벤처기업 집적지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서울의 테헤란밸리를 떠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성남·용인·대덕 등이 새로운 집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요컨대 정부주도 정책보다 시장의 필요에 의해 기업이 변하고 벤처환경도 변하면서 진화하고 있다(강세호, 2000).

다. 거래소의 우량기업 추가조차 하락세에 있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위축될 수 있다. 즉, 벤처기업에 자금 집중하면서 대기업이나 기초연구분야의 인력이 벤처로 이탈하고 한쪽에 편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과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전통산업과 벤처기업이 유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김근동, 2000). 이들은 균형발전하고 상호보완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또 금년 4월 이후의 벤처 한파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¹⁶⁾

열풍이 최근에는 변화하였다. 전통 굴뚝산업과 벤처기업의 유리현상이 개선되는 조짐이 보인다. 제조업의 재구조화도 생기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스닥의 거품이 꺼지면서 투기바람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열풍이 한파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한파 또한 열풍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¹⁷⁾ 조정국면에 들어섰다. 앞으로도 조정을 겪으면서 장기적으로는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특히 인터넷 벤처기업은 수익모델이 있는 것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 중이다. 업계 전체로는 수익모델 부재와 자금압박으로 곤란을 겪고 있지만 시장을 선점한 기업은 고속 성장을 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로 몇 개의 기업만이 생존한다는 e비즈니스의 법칙이 현실이 되고 있다. 옥석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정이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벤처 열풍과 열풍을 둘러싼 담론에는 상반된 성격과 경향과 평가가 섞여 있다. 이 와중에서 우리는 열풍과 한파에 가려있는 벤처의 실태를 바로 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벤처가 가진 긍정적인 면을 최대화하는 첫 걸음이다.

16) 그 외에 비경제적 측면에서, 투기 바람을 일으켜 사회의 생산적인 가치체계를 위협하는 것과 자본주의의 새로운 신화를 강요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 효과를 들 수 있다.

17) 한파가 열풍에 가렸던 벤처의 실체를 되돌아보게 한다. 무엇보다도 벤처는 고위험·고수익 업체라는 것이다. 기존의 제조업을 보듯이 해서 안 된다. 성장과정에 도태되는 기업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둘째, 벤처는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나친 기대로 아직 과실을 맺지 못한다고 매도해서는 곤란하다. 셋째, 열풍에 편승해 투기가 지나쳤지만 그래도 벤처기업이 앞으로의 산업구조에서 점차 주인공이 되어갈 것이다. 열풍과 한파를 넘어서 참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남훈. 2000, "신경제의 가치론적 해석," 『경제와사회』, 가을호.
- 강세호. 2000, "IT칼럼," 『한국경제』, 8월 10일자.
- 강원·조영빈 외. 2000, 『코스닥시장의 급등락과 발전과제』,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21.org>.
- 권태환·조형제·한상진. 2000,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M&B.
- 김근동. 2000, "벤처-전통산업, '쌍두마차 정책' 시급하다," 『자유공론』, 4월호.
- 김은환·이용희. 2000, 『전통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21.org>.
- 김정호. 2000, 『조정기의 벤처경영』,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21.org>.
- 김정호·김완표. 1999, 『벤처기업의 성공과 버블』,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21.org>.
- 매일경제. 2000, 『매일경제』, 7월 18일자.
- 양신규·류동민. 2000, "신경제와 벤처 현상의 이해," 『경제와사회』, 가을호.
- 유시왕. 2000, 『코스닥의 역할과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21.org>.
- 윤성훈 외. 2000, 『신경제의 확산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21.org>.
- 이상철. 2000, "벤처 열풍의 정치사회적 함의," 『법과 정책』 6,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이상호. 2000, "벤처산업과 노동자," 진보네트워킹센터, 『한국사회 벤처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http://cast.jinbo.net/video/special_cast.html.
- 이천표. 2000, "금융 글로벌리제이션의 추이와 소국의 적용 방안," 『사회비평』, 여름호.
- 임응기. 2000, "오늘 우리에게 주식시장은 무엇인가?," 『사회비평』, 여름호.
- 조형제·임현경. 1999, "미국 경제의 산업구조조정: '탈산업화' 명제의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봄호.
- 중소기업청. 2000a, "벤처기업통계," http://venture.smba.go.kr/info/in_stat.html.
- _____. 2000b, "벤처기업 현황."
- _____. 1999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
- 한겨레. 2000a, 『한겨레신문』, 4월 25일자, 5월 4일자, 6월 12일자, 10월 16일자.
- _____. 2000b, "벤처 불패?," 『한겨레21』, 3월 16일자.

- 한국경제. 2000 『한국경제』, 8월 1일자, 8월 8일자, 8월 17일자.
- 한준. 2000, “정보기술과 신경제(사회학),” 한국사회학회 춘계특별심포지움 발표논문.
- 홍석만. 2000,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벤처경제의 문제점,”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사회벤처 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http://cast.jinbo.net/video/special_cast.html.
- 홍성태. 2000, “지식사회와 벤처 이데올로기,” 『경제와사회』, 가을호.
- Cox, Michael and Richard Alm. 2000, “Information Age Economics: Good News on Inflation,” *Intellectual Capital*, <http://www.intellectualcapital.com/issues/issue373/item9299.asp>.
- Davis, Jim and Michael Stack. 1997, “The Digital Advantage,” in Jim Davis, Thomas Hirschl & Michael Stack(eds.), *Cutting Edge: Technology, Information, Capitalism and Social Revolution*, Verso.
- Kenney, Martin. 1997, “Value Cre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The Rise of the Knowledge Worker,” in Jim Davis, Thomas Hirschl & Michael Stack(eds.), *Cutting Edge: Technology, Information, Capitalism and Social Revolution*, Verso.
- Krugman, Paul. 2000, *New York Times*, March 12.
- Sahlman, William A. 1999, “The New Economy is Stronger than You Think,” *Harvard Business Review*, November-December.
- Schiller, Dan. 1997, “The Information Commodity: A Preliminary View,” in Jim Davis, Thomas Hirschl & Michael Stack(eds.), *Cutting Edge: Technology, Information, Capitalism and Social Revolution*, Verso.